

第146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5月25日(木)

場 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三星重工業(株)의不當勞動行爲등에대한國會眞相調査團派遣要請에관한請願(李相洙·盧武鉉·李海瓚議員의 紹介)
2. 모토로라코리아(株)不當勞動行爲是正에관한請願(盧武鉉議員 紹介)
3. 大企業의不當勞動行爲등에대한國會眞相調査團派遣에관한請願(李相洙·李海瓚議員 紹介)
4. 勞動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改正에관한請願(李康熙·金炳龍議員 紹介)

審査된案件

1. 三星重工業(株)의不當勞動行爲등에대한國會眞相調査團派遣要請에관한請願 (李相洙·盧武鉉·李海瓚議員의 紹介로 提出).....1面
2. 모토로라코리아(株)不當勞動行爲是正에관한請願(盧武鉉議員의 紹介로 提出) 1面
3. 大企業의不當勞動行爲등에대한國會眞相調査團派遣에관한請願 (李相洙·李海瓚議員의 紹介로 提出).....1面
4. 勞動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改正에관한請願(李康熙·金炳龍議員의 紹介로 提出)14面

(10時35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次 勞動委員會를 開議합니다.

1. 三星重工業(株)의不當勞動行爲등에대한國會眞相調査團派遣要請에관한請願(李相洙·盧武鉉·李海瓚議員의 紹介로 提出)
2. 모토로라코리아(株)不當勞動行爲是正에관한請願(盧武鉉議員의 紹介로 提出)
3. 大企業의不當勞動行爲등에대한國會眞相調査團派遣에관한請願(李相洙·李海瓚議員의 紹介로 提出)

○委員長 金令培 議事日程 第1項 三星重工業(株)의不當勞動行爲등에대한國會眞相調査團派遣要請에관한請願(李相洙·盧武鉉·李海瓚議員 紹介) 議事日程 第2項 모토로라코리아(株)不當勞動行爲是正에관한請願(盧武鉉議員 紹介) 議事日程 第3項 大企業의不當勞動行爲등에대한國會眞相調査團派遣에관한請願(李相洙·李海瓚議員 紹介) 이상 3件을 一括해서 上程합니다.

이 3件의 請願에 대한 說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本 請願 3件은 지난 3月31日 本 勞動委

員會에 議事日程 3項 4項 5項으로 上程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루지 못한 것은 議席의 부족으로 인해서 처리를 못 한 바 있습니다. 議席 不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議決 事項인데 議決定足數 未達인 까닭에 처리를 못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의 會議錄을 낭독해 드리면 委員長으로서 말한 부분입니다.

“議事日程 第3項과 4項 5項 이 3件의 請願問題는 아시다시피 議席의 사상으로 오늘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는 留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못 하고 오늘 上程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三星重工業(株)의不當勞動行爲등에대한國會眞相調査團派遣要請에관한請願(李相洙·盧武鉉·李海瓚議員 紹介)의 件에 대해서 請願의 趣旨說明을 紹介議員인 李相洙議員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紹介議員이 出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委員님들에게 配付해

드린 油印物에 趣旨說明이 다 있는 까닭에 그것으로 代身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台燮委員 왜 李相洙委員도 계신데...

○南載熙委員 아까 委員長님 설명이 먼저번에 논의를 해서 議決을 하려다가 成員未達로 保留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繼續審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미 설명이 된 것이란 말이지요.

○委員長 金令培 上程을 했는데 趣旨說明까지는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紹介議員이 세 분이신데 李相洙議員이 나와 계시니만큼 李相洙議員이 趣旨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議員 平民黨의 李相洙議員입니다.

간단하게 請願의 趣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三星重工業勞動者들에 의하면 三星重工業은 自主的인 勞動組合結成을 封鎖하기 위해서 組織的인 拉致 監禁 暴行 등 暴力的인 不當勞動行爲를 저질러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幽靈勞組도 만들어서 憲法에 보장된 勞動者의 自主的인 團結權을 侵害하여 社會的인 物議를 惹起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우리 勞動委員會에서 1989年3月11日 三星重工業에 대한 不當勞動行爲 및 幽靈勞組 實體糾明을 위한 公聽會를 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나온 陳述人들의 陳述이 엇갈리고 또한 現場을 가보지 않으면 정확한 사실을 糾明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請願人들은 國會調查團이 직접 現場에 나와서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本 請願을 提出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社會에 物議를 빚고 있고 계속적으로 勞動問題의 懸案으로서 우리 勞動委員會가 열릴 때마다 提起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짓기 위해서라도 우리 國會調查團이 한번 직접 現地를 訪問하고 조사한 다음에 문제를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도 調查團을 보내서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모토로라코리아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請願의 趣旨說明을 紹介議員이신 盧武鉉議員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盧武鉉議員 盧武鉉議員입니다. 모토로라코리아 株式會社는 87年 이후 계속해서 勞動組合에 대한 彈壓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事業場입니다. 그리고 88年12月 새로이 결성된 勞動組合에 대해서 勞動組合의 設立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勞組員을 監禁하고 또 勞組員에게 暴力과 「린치」行爲를 계속해 왔으며 일체 協商에 응하지 않는 불성실한 勞使關係로서 社會的인 物議를 계속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勞動組合員의 몸에 불이 붙었던 事件에 관해서 쌍방이 放火責任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로 勞動者側에서는 使用者가 放火했다는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쪽이든 放火의 명백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난 4月1日에 일부 勞使間에 合意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合意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勞動組合 事務室을 閉鎖시켜 놓고 勞動組合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請願을 紹介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大企業의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國會眞相調查團派遣에 관한 請願에 대해서 紹介議員이신 李海瓚議員 나오셔서 趣旨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瓚議員 平民黨의 李海瓚議員입니다. 지금 앞서 同僚議員께서 三星重工業과 모토로라코리아의 不當勞動行爲에 관한 請願 紹介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大企業의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國會眞相調查團派遣에 관한 請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案件은 앞에 말씀하신 三星重工業 모토로라코리아하고 내용상 重複되는 事案입니다. 그러니까 現代重工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現代重工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臨時總會를 통해서 勞動組合이 再構成되고 지금 正常操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現代重工業에서는 특별한 不當勞動行爲가 별도로 발생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三星重工業 모토로라코리아 不當勞動行爲에
 관련하여 두 議員께서 眞相調査團派遣의 필
 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모토로라코
 리아에서 近者에 勞動組合事務所가 開設은
 되었지만 組合員들이 자유롭게 出入하지 못
 하고 있다 라는 歎願을 많이 듣고 있습니
 다. 그리고 삼성重工業은 위재학委員長을 제
 외한 나머지는 復職이 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삼성重工業 不當勞動行爲에
 관련해서는 組合構成이라든가 兵役特例者들
 徵集問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事業場에
 대해서는 國會眞相調査團派遣의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卓英鎭 專門委員입니다.

먼저 삼성重工業의 不當勞動行爲등에대한國會
 眞相調査團派遣要請에 관한 請願을 檢討한 내용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一. 請願人：慶南巨濟郡新縣邑長坪里530

삼성아파트5棟202號

위 재 학

二. 紹介議員：李相洙·盧武鉉·李海瓚議員

三. 請願接受 및 回附日字

1. 接受日字：1988.3.22

2. 回附日字：1989.3.28

四. 請願要旨

1. 請願人들은 自主的 勞動組合設立을 봉쇄
 하기 위하여 暴力的 不當勞動行爲를 하
 고 있는 삼성重工業(株)에 대하여 國會
 에서 眞相調査團을 現地에 派遣하여 철
 저한 眞相糾明을 해주기 바라는 內容임.

2. 삼성重工業(株)은 自主的인 勞動組合結成
 을 봉쇄하기 위하여 勞組에 대한 組織
 的 납치 감금 폭행등 暴力的 不當勞動
 行爲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소위 幽靈
 勞組를 構成하여 憲法에 保障된 勞動者
 의 自主的 團結權을 侵害하여 社會的
 물의를 惹起시키고 있으므로 眞正한 勞
 使安定을 위하여 國會에서 眞相調査團을
 現地에 派遣하여 民主勞組 및 소위 幽

靈勞組에 대한 철저한 眞相糾明을 해주
 기 바라는 請願임.

五. 檢討意見

三星重工業(株)의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國
 會眞相調査團 派遣을 원하는 本請願의 內容
 에 대해서는 이미 當委員會에서 89年3月11日
 第145回國會 第8次勞動委員會에서 長期勞使紛
 糾의 解決을 위한 當事者 意見聽取의件을
 上程하여 同 會社의 勞·使 雙方代表 및
 勞動部關係官을 出席시킨 가운데 그 眞相糾
 明을 위한 意見聽取 및 報告·質疑를 통하
 여 勞使紛糾의 眞相을 充分히 把握하였으며
 뒤에 침부된 參考資料 合意事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勞·使 當事者間에 '89年4月22日
 解雇者復職등에 合意하여 勞使紛糾가 일단락
 되었다는 勞動部의 通報를 받았고 또 아시
 는 바와 같이 當 委員會의 眞相調査團 構
 成은 國會法第54條에 의해서 언제든지 委員
 會 議決로 구성할수 있으므로 本 請願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함이 타당
 하다고 思料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參 照)

<면직자 복직 경위및근무현황>

1. 경 위

- '89.4.16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노사 안정을 위해 노총 불법 점거 농성과 관련하여 사규에 의해 면직된 16명중 위재학을 제외한 15명에 대한 복직 합의
- '89.4.22 면직자중 특혜자 9명에 대한 복직 최종 합의(특혜자 10명중 강병원은 군복무중으로 제외)

2. 근무 현황

- 면직자 총 16명중
 - ①위재학에 대한 처리건은 현재 노사협의중이며
 - ②나머지 15명은
 - 강병원 : '89.1월 군입영하여 방위근무중
 - 임대성(탐재과근무) : 삼양사에 취업하여 복직 불원
 - 박병관 : 본인이 관제사전출을 원해 현재 전출관계사 확정중(5/16확정 예정)
 - 잔여 12명 : 5/8부터 복직하여 정상근무중임.
- 별 첨 : 합의사항 1부

- 이 상 -

면직자(특례자) 합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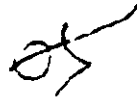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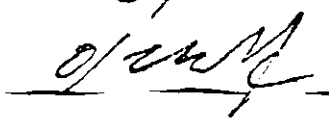
1. 일 시 : 1989.4.22일 09 : 50~15 : 30
2. 장 소 : 삼성중공업(주) 16층 회의실
3. 면직자(특례자)와 관련하여 회사측 협의회측 면직자측은 별첨내용과 같이 합의함.

회 사 측		협 의 회		면 직 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所長 임도재		위원장 박태식		위재학	임리민 2개
副所長 김홍태		사무국장 양동근		변성준	
부장 주화수		총무 이성운		이달진	
과장 김영민		대의원 김수도		김일태	
과장 강영부				김훈관	
				박건집	
				정인영	
				김언중	

답 의 사 항

- 특례 해당되는 면직자 (9명) 은 면직조치가 없었으므로 하며
- 병역문제는 회사가 책임진다
- 면직기간동안의 임금은 노동자 협의회측의 의견을 거쳐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 회사에 출근하여 동료와 상호 인사하고 15일간 휴식을 취하고 그 이상은 회사측과 별도 개인 면담으로 처리한다
- 특례 면직자 (9명) 은 1989. 4. 22자로 농성을 돌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 하였던 사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서울민사지방법 사건번호 89 키 1315 및 6216」, 해고무효소송 「서울민사지법 사건번호 89 가합 1037 및 491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노위 접수번호 253」을 1989. 4. 24한 취한다.

1989년 4월 22일

- 이 상 -




다음은 모토로라코리아(株)不當勞動行爲是正에 관한請願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1. 請願人: 京畿道富川市南區 항인동 101-14

히 정 석

二. 紹介議員: 盧 武 鉉議 員

三. 請願接受 및 回附日字

1. 接受日字: 1989.3.21

2. 回附日字: 1989.3.28

四. 請願要旨

1. 모토로라코리아(株)는 勞動組合員들을 彈壓하는등 不當勞動行爲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眞相糾明과 不法行爲者에 대한 依法措置를 바라는 內容임.

2. 모토로라코리아(株)는 1988.12.22 設立된 勞動組合에 對하여 組合員 감금조치 및 非組合員으로 구성된 救社隊에 의한 暴力 린치行爲 放火事件으로 勞組員 14名이 重火傷을 입는 등 勞組員들을 彈壓하고 있으며 勞動組合幹部에 대한 解雇 拘束措置등 不當 勞動行爲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勞動者의 權益 向上을 위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眞相糾明과 不法行爲者에 대한 依法措置를 해주시 바라는 請願임.

五. 檢討意見

모토로라코리아(株)의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是正을 원하는 本 請願의 內容에 대해서는 이미 當 委員會에서 '89年3月11日 第145回國 會 第8次 勞動委員會에서 長期勞使紛糾의 解決 을 위한 當事者意見聽取의 件을 上程하여 同會社 의 勞·使 雙方代表 및 勞動部關係官의 出 席과 그리고 '89年3月20日 第145回國會 第9次 勞動委員會에서 主要勞使紛糾 懸案報告書를 上程하여 勞動部長官을 出席시킨 가운데 意 見聽取 및 質疑를 한바 있으며 아울러 勞 動部로 하여금 보다 철저한 眞相調查와 不 法行爲者에 대한 依法措置를 促求하는등 그 동안 當 委員會에서 많은 努力을 傾注한 結果 '89年4月1日 모토로라코리아(株)의 勞使 間에 圓滿한 合意가 이루어져서 參考資料에 서 보시는 바와같이 組合側은 不當勞動行爲 의 救濟申請하고 會社側은 告訴·告發을 取

下하는데 同意하여 同會社는 현재 正常運營 中이라 함으로 本 請願은 本會議에 附議하 지 아니하기로 함이 타당하다고 思料됩니다.

(參 照)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합 의 서

1. 해고자 복직/출근정지 처분의 취소

- (1) 회사는 도청환을 제외한 해고자 3인(이정석, 김갑득, 김민배)을 해고 당시의 원칙에 소급 복직시키고 해고일 이후 지급받을 수 있었던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한다.
- (2) 전항의 복직자는 주후 사유를 준수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별첨#1)
- (3) 회사는 최근의 노사분규 기간중 출근정지된 72명에 대하여 출근 정지 처분을 소급 취소하고 동 출근 정지 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 하며, 주후 사유준수에 대한것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별첨 #2)

2.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취하

조합은 현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도청환에 대한 해고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취하하며, 취하서를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취하서 사본1부를 회사에 제출한다.

3. 고소 고발 등의 취하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은 도청환과 김성기에 대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번 노사분규외 관련하며 그 형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및 회사의 임직원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제기된 민, 형사상의 제소, 고소, 고발을 취하하며, 취하서를 합의서 서명일부터 2일 이내에 관계당국에 제출하고 취하서 사본 각 1부씩을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4. 평화약정

회사와 조합은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제3자의 개입이 없이 당사자들의 상호성실한 대화와 타협하에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쌍방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관계 법률이 정하는 상호 폭력배제, 파괴행위 및 부당 노동 행위 금지와 사유를 준수하고,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5. 상근자

상근자는 현재 1명으로 하며 3개월 이내에 1명을 추가한다.

6. 사무실

- (1) 회사는 조합 사무실로 현재 도서실을 개조 제공하고, 출입문은 건관 내측, 출입문 가까이 설치한다.
- (2) 게시판은 노조 사무실임에 설치한다.
- (3) 사무실 사용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휴일, 휴무 사용시에는 회사와 협의한다.)
- (4) 집기 (침제 책상과 의자 1조, 보조의자 3개, 한글타자기 1대, A급 전화기 1대)

7. 기타 연안 문제는 주후 단체고시를 통해 계속 논의한다.


8. 시행


- (1) 위항에 대한 실시는 제2항과 제3항에 열거된 쌍방의 소를 취하한 즉시 시행한다.
- (2)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간 상호 취제2항과 제3항의 취하한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고소, 고발, 구제신청등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989년 4월 1일

모토로라 코리아 주식회사

모토로라 코리아 주식회사 노동조합

라 권 배 
 백 동 철
 강 재 호
 정 선 영
 병 상 권

최 경 석 
 손 권 호
 김 민 배
 김 합 두
 이 영 숙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다음을 끝으로 大企業의 不當勞動行爲 등에 대한 國會眞相調査團 派遣에 관한 請願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 一. 請願人: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35 韓國勞動組合總聯盟 委員長 朴鍾根
- 二. 紹介議員: 李相洙·李海瓚議員
- 三. 請願接受 및 回附日字
 - 1. 接受日字: 1989.3.28
 - 2. 回附日字: 1989.3.29

四. 請願要旨

1. 大企業에서 勞動組合員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不當勞動行爲에 대하여 國會에서 眞相調査團을 派遣하여 철저한 眞相糾明을 해주시기 바라는 內容임.

2. 우리나라 代表的인 企業인 三星重工業(株)와 現代重工業(株) 모터로라코리아(株)에서는 自主的인 勞動組合 結成을 방해하고 勞動組合員에 대하여 납치 감금 폭행 등 不當勞動行爲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勞動者의 權益向上과 眞正한 勞使安定을 위하여 國會에서 眞相調査團을 紛糾事業場에 派遣하여 眞相을 糾明해주시기 바라는 請願임.

五. 檢討意見

三星重工業(株) 現代重工業(株)와 모터로라코리아(株)등 大企業의 不當勞動行爲 등에 대한 國會에서의 眞相調査團 派遣을 바라는 本 請願의 內容에 대해서는 이미 當委員會에서 89年3月10·11日 第145回國會 第7·8次 勞動委員會에서 長期勞使紛糾의 解決을 위한 當事者意見聽取의件을 上程하여 勞·使雙方代表 및 勞動部關係官의 出席裡에 그리고 89年3月20日 第145回國會 第9次 勞動委員會에서 主要勞使紛糾 懸案報告를 上程하여 勞動部長官을 出席시킨 가운데 그 眞相糾明을 위한 意見聽取 및 質疑를 통하여 그 內容이 소상하게 밝혀졌으며 이 過程에서 當委員會는 이들 大企業의 勞使紛糾를 早速히 妥決되도록 總通하고 仲裁調整案까지 提示한 바 있습니다.

그후 三星重工業은 89年4月22日에 解職된 勞動者의 復職 등에 合意하여 勞使紛糾가 일단락되었고 모터로라코리아는 89年4月1日

勞使間의 원만한 合意로 解職者가 復職되고 勞使間에 平和約定下에 正常運營되고 있으며 本 請願에서 지목하고 있는 大企業은 三成·現代重工業 모터로라코리아 등을 指稱하고 있으므로 앞서 三星重工業과 모터로라코리아 등에 대해서는 이미 報告를 드렸기 때문에 現代重工業部分만을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當 委員會에서도 現代重工業에 대해서는 現代重工業勞使紛糾眞相調査團을 파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같이 現代重工業은 89年4月28日 勞組新執行部가 構成된 후 勞使兩側이 勞使紛糾解決에 努力中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前記한 大企業의 不當勞動行爲 등에 대한 國會眞相調査團 派遣에 관한 本 請願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함이 좋을 것으로 思料됩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趣旨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3件의 請願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盧仁煥委員 質疑하십시오.

○盧仁煥委員 盧仁煥입니다. 이 請願이 接受된 것이 3月22日 回附된 것이 3月28日이고 방금 여러 委員님들이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다 들으셨습니까마는 三星重工業은 既 合意가 되었고 모터로라도 合意되었다고 報告되었습니다. 大企業에 대한 不當勞動行爲 이것이 주로 現代 三星重工業 모터로라 세件인데 우리 勞動委員會가 여러번 調査團도 파견했고 또 대부분 지금 妥結되어서 全體的으로 우리 勞使紛糾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이 때에 이런 것운... 다시 調査團을 만든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이고 또 이것이 상당히 時日이 지났는데 또 다 해결되었는데 委員會에 回附해서 해야할 것인지...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나 이런 생각인데 이 請願을 紹介한 委員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質疑가 아니라 意見이시군요. 紹介議員이 答辯해 주시지요.

○李相洙議員 三星問題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盧仁煥委員께서 三星問題가 法的으로 合意가 되어서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위재학씨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解雇부분에 관해서는 訴訟을 提起하였다가 合意되어서 다시금 復職이 되고 軍에도 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재학씨 부분은 전부 남아있고 三星問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三星이 勞組의 設立을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편재 존재한다는 三星의 勞組가 사실상 勞組로서의 어떤 要件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은 지금도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本議員이 이 부분의 조사를 主張하는 이유는 三星問題는 언제나 勞動委員會가 열릴 때마다 단골「메뉴」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真相을 알고 糾明함으로써 문제를 매듭짓는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社會적으로 紛爭을 야기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우리 國會調查團이 내려가서 實相을 알아본 다음에 매듭을 지으면 勤務하는 勞動者들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정확히 매듭짓는 의미에서도 調查團을 파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더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南載熙委員 質疑가 아니라 의견은 안될까요?

○委員長 金令培 質疑가 계시면 紹介議員이 答辯을 하시니까 자언히 質疑지만 討論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南載熙委員 發言하십시오.

○南載熙委員 세 件을 본 적에 아까 李海瓊委員도 좀 비치셨습니다마는 이 세 件이 마지막 3項하고 1·2項이 重複되고 相衡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만약에 3項이 채택되면 1·2項이 필요없을 정도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李海瓊委員께서도 是認하셨습니다.

專門委員 報告도 있었습시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아까 李相洙議員이 말씀하신 것처럼 完全 妥結은 안되었지만 큰불은 거진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イ望 請願을 紹介하셨는데 그냥 撤回한다든지 하는 것도... 또 完全解決은 안된 것이니까 또 勞使關係라는 것이 完全解決이라는게 있을 수 없고 불씨는 항상 남는거란 말이지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말고 세 件을 전부 無期限 繫留를 시켜두는 것이 서로간에 입장을 충분히 살리는 方案이 아니겠느냐 해서 意見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南載熙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한 이유를 內包하고 있는 發言이라고 생각합니다. 本 件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4黨 幹部會議에서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10時58分 會議中止)

(11時31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續開를 宣言합니다.

4黨 幹事會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件의 請願의 件은 그 請願의 정신을 받아서 大企業의 不當勞動行爲를 勞動部가 조사해서 다음 會期에 報告하도록 하고 그 報告結果가 미진할 때는 調查團을 構成해서 조사하도록 한다” 이래서 本 請願의 件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合意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는 데 異議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南載熙委員 發言하십시오.

○南載熙委員 지금 委員長님! 報告 말씀들어 보면 政府側의 報告가 있는 다음에 그 報告를 듣고 미진하면 調查團을 構成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條件附 調查團 構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政府側 報告를 듣고 다시 그 문제를 論議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미진하면 調查團을 構成한다” 벌써 調查團 構成에 대해서 條件附를 여기서 미리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委員長 金令培 “미진할 때는...” 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미진하냐 미진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은 論議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必然的으로 論議는 되는 것입니다.

○南載熙委員 아니 그러니까 “報告를 듣고

그때 가서 調査團 構成 여부를 論議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남득이 되는데 "미진하면 調査團을 構成한다" 지금 委員長이 그렇게 報告를 하셨다고요. 이 다음 會期에 할 것을 미리 여기서 條件附 決議를 해 놓는 것이 저는 不合理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니까 合意事項이니까 合意事項을 그대로 報告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文脈 내용에 論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南載熙委員 그렇다면 幹事 중에서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니까 미진하나 미진하지 아니하나 이런 문제는 必然的으로 論議해서 委員會가 결론을 내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盧仁煥委員 아까 幹事會議 할때 勞動部가 다음 會期까지 조사해서 報告를 우리가 듣고 그것이 미진하면 論議해서 調査團을 構成하자 하는 것으로 論議된 것으로 아는데 방금 내가 나오면서도 委員長님한테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解釋이 미진하면 調査團을 構成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條件附加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나도 그것을 우려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미진하나 안하나 이것이 바로 論議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調査報告가 미진할 때 다시 論議해가지고 調査團을 構成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이 문제의 核心이 이렇습니다. 저희 平和民主黨을 비롯해서 野黨側에서 지금 大企業의 不當 勞動行爲에 대해서 調査團을 構成하자 이것은 그동안의 政治 全般에 걸친 큰 事件 때문에 묻혀 버려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 大企業의 紛糾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없다 이런 視角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하니까 勞使紛糾가 없는 것처럼 보는 視角은 조금 是正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를 國會 차원에서 해결하고 또한 해결이 됐으면 해결이 된 대로 확인해 주는 그런 절차가 우리 勞動委員會에서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調査團을 構成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民正

黨側에서 이야기하기를 현재로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大企業의 사정과 또 勞使關係의 問題點이 있기 때문에 勞動部로 하여금 한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우리 野團에서는 이제까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 조사하자 이렇다가 저희가 양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서 더이상 논란의 必要性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은 本委員 생각으로는 벌써 이 설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남득이 가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論議라고 하는 것은 다음 會期에 그 동안의 調査報告書를 보면 自動的으로... "미진하면" 이라는 것은 論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가서 論議해서 미진하다고 할 때는 調査團을 構成하자 이것은 하등의 瑕疵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南載熙委員 아니 분명히 달라요.

○委員長 金令培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自動的으로 調査團을 構成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은 異議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진할 때는"이니까 自動的으로 調査團을 構成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南載熙委員 政府側 報告가 미진하나 안하나 하는 문제와 調査團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政府側이 얼마나 철저하게 調査報告를 낼지 몰라도 政府側 報告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진하나 안하나 하는 문제가 調査團으로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것은 論理上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政府側 報告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政府側이 報告하면 언제든지 미진한 것을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委員長 報告대로라면 "미진하면 自動的으로 調査團이 構成된다"이거예요. 그러니까 "政府側 報告를 듣고 그 調査團 構成 여부를 再論한다" 이렇게 하면 몰라요.

○委員長 金令培 李台燮委員 發言하십시오.

○李台燮委員 제 의견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委員長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미진할 경우에 調

査團을 構成한다” 그러니까 미진하나 안하나 그것도 논의를 해 봐야 되지마는 그때 가서 그 논의를 거쳐서 調査團을 構成하려면 委員會의 決議가 있어야 調査團이 構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그 宣言에 의해서 自律적으로 委員長이 調査團을 派遣하는 것이 아니라 委員會에서 決議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李相洙議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與黨 쪽에서 미진하지 않다는 이유로 調査團을 構成하지 않으려고 하면 반대할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지 다음 會期라고 하는데 그 會期를 언제까지로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못박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臨時國會가 열리는 첫委員會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大企業一般”으로 해 놓으면 막연해가지고 調査의 集中성을 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大企業一般”하지 말고 三星 모토로라코리아 現代重工業 세 곳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자꾸 이렇게 되면 會議가 산만해서 질서가 없습니다. 일단 合意가 된 것은 그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李台燮委員이 정확한 해석을 하셨는데 그 結果報告가 미진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나 안하나 하는 것은 우리가 勞動委員會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미진하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 全體會議에서 議決을 해야만 調査團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신경쓰실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載熙委員 發言하십시오.

○南載熙委員 저희 黨所屬 李台燮委員의 말씀에 異見을 얘기하기 안되었습시다라는 저 쪽에서 異見을 냈으니까 더 설명을 하겠는데 委員長님 말씀하고 제 얘기도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委員長님 설명이 “다음 會期에 政府側 報告를 듣고 그 報告가 미진하면 調査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때 가서 調査團을 구성

하면 議決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 委員長이 그렇게 宣布해서 이 문제가 넘어 간다면 오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政府側 報告書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議決을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異議없이 찬성해 놓으면 이 다음 調査團 構成에 대해서 異議를 제기하는 것은 논리상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幹事會議에서 노력해서 하신 報告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論理的인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미진이나 미진이 아니냐는 차원과 調査團 構成의 차원은 차원이 다른데 그것을 同一次元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論理的인 問題點이 있다 따라서 차라리 이 세 案件을 그대로 整留를 시키고 “政府側 調査報告를 들은 다음에 그때 가서 審議를 한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논리상으로 幹事님들이 合意가 된 데 대해서는 問題點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盧仁煥委員 國會가 매번 잘 수습이 되고 있는 것 마무리 하기 위해서 調査團까지 포함해야 되느냐 이것은 勞動部에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紹介議員도 있고 하니까 政府가 調査를 해 가지고 그 報告를 듣고 그래가지고 미진하면 다시 論議해 가지고 調査團을 그때 구성합시다. 論議하자는 용어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論議한다는 것은 委員會에서 어차피 논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논의한다 하면 그만인데 그 論議 몇字만 집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방금 委員長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그 結果가 미진할 때에는 論議해서 調査團을 구성 調査하도록 한다” 이렇게 합니다. 異議 없지요?

○李相洙議員 企業의 범위를 한정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사실상 일반적인 報告書밖에 안되니까요.

○李海瓊議員 제가 紹介議員이거나 말씀드리는데 大企業의 不當勞動行爲등에 관한 請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請願要旨에 보면 三星重工業 現代重工業 모토로라코리아 이 세 會社가 特定化 되어 있는데 뒤에 專門委員의 檢討意見에 보면 三星重工業 現代重工業 모토로라코리아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이 취지를 살려서 大企業 전반을 다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 事業場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것인데 오늘 合意도 세 事業場에 대한 不當勞動行爲에 관한 政府側의 조사를 하는 그런 취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盧仁煥委員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지금 紹介議員인 李海瓊議員의 發言도 기록으로 남을 것이니까 굳이 提案해서 하지 말고 그대로 決議하면 되는 것이예요.

○李相洙議員 이 취지가 반드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南載熙委員이 얘기해 가지고 분명히 한 것처럼 제가 제기한 것도 분명히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金令培 당초에 이 件을 처리하는 과정에 第1項이 三星重工業의 不當勞動行爲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項이 모토로라코리아 不當勞動行爲는 正에 관한 請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第3項이 大企業 不當勞動行爲등에 대한 國會眞相調查團構成 그런데 내용에 보면 大企業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서 1項 2項은 3項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委員님들 發言가운데에도 지적이 있었고 請願要旨 내용을 보면 三星重工業 現代重工業 모토로라코리아 이것이 企業名稱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3項 한件만 처리한다 하더라도 3個 請願의 件을 다 처리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幹事會議에서 合意되기를 이 請願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렇게 委員長이 報告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李相洙委員께서 지적하는 發言內容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길게 논의가 되면 다시 幹事會議를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議事進行發言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낸 請願內容을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3個 會社만을 調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勞動部에 우리가 調査를 의뢰했을 때 너무 많은 企業을 調査하도록 하면 일반적인 勞動動向報告書 이상의 차원으로 報告가 안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자세하고 상세하게 조사를 해주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3個 企業으로 한정해서 調査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 분명하게 여기에서 못을 박아서 合意事項에 넣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니까 4黨 幹事會議에서 합의된 것은 하나의 案입니다.

그러면 李相洙委員 改議하세요 修正案 내세요.

○李相洙委員 방금 제가 말씀한 내용대로 改議하지요. 그러니까 勞動部에서 調査를 할 企業의 내용은 三星重工業 모토로라코리아 現代重工業만 집중적으로 調査해서 報告해 주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南載熙委員 찬성합니다.

○李海瓊委員 三請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지금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것이 하나의 動議案의 성격을 띠고 李相洙委員이 改議를 했는데 이것을 각각 表決해야 되겠느냐...

○韓光玉委員 제가 幹事會議 合意事項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委員長께서 어떻게 改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幹事會議의 정신도 請願人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三星 現代 모토로라코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具體化시키자는 案이니까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이 案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4黨 幹事들께서 李相洙委員이 改議로 제의한 내용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어떠십니까?

○盧仁煥委員 좋습니다.

○韓光玉委員 좋습니다.
 ○李仁濟委員 民正黨은 좋습니다.
 ○金炳龍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하나로 묶어진 결과
 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다 아실테니까 다시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請願 3件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異議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改正에관한請願(李康
 熙·金炳龍議員의 紹介로 提出)
 (11時50分)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勤
 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改正에관한請願을 上程하
 겠습니다.
 이 請願은 請願審査小委員會에서 審査한
 것이므로 먼저 小委員會의 審査結果報告를
 들겠습니다.
 金東仁 小委員長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金東仁 請願審査小委員長 金東仁委
 員입니다.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改正에관한請願에 대하
 여 審査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請願의 內容은 現行 勤勞者의날制定에
 관한法律을 改正하여 “勤勞者의날”을 3月10日
 에서 5月1日로 變更하고 勤勞者의날의 名稱
 을 勞動節로 改正하여 줄 것을 要求하는
 것입니다.
 當 小委員會는 89年5月23日 小委員會를 開
 議하여 政府側 關係官을 參席시킨 가운데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후 解放後 勤
 勞者의날이 法制化된 背景과 世界各國의 勤
 勞記念日制定의 經緯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審議한 結果 紀念日字를 現在의 3月10日에서
 5月1日로 改正하는 것은 世界的으로 多數國
 家에서 通用되고 있고 勞總의 要求를 反映
 시킴으로써 勤勞者의 意思를 尊重한다는 뜻
 에서 改正하는 것이 妥當한 것으로 合意를
 보았으며 勤勞者의날을 勞動節로 變更하는
 問題는 國慶日에관한法律에 따른 4大名節에만

“節”이란 用語를 使用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名稱을 勤勞者의날로 改正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請願의 內容은 立法事項이므
 로 改正立案은 當 委員會에서 現存하는 法
 案審査小委員會로 하여금 成案하게 하여 委
 員會案으로 發議하기로 하고 本 請願은 本
 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였습니
 다.

참고로 當 請願審査小委員會의 活動事項을
 말씀드리면 오늘 報告드린 請願外에 그동안
 當 小委員會에는 勞動金庫法制定에관한請願
 1980年度前後 勤勞者의解雇真相糾明關係請願 2
 件 釜山港運勞組不正非理剔抉을위한國會調查團
 派遣要請에관한請願 이상 4件의 請願이 回附
 되어 當 小委員會에서는 89年2月24日 및 5
 月23日 兩日間に 걸쳐 진지한 審議를 한바
 있으나 보다 충분한 資料와 調查檢討가 要
 望되어 다음 會期까지 時間을 갖고 審議하
 도록 하여 留保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小委員會의 審査報告內容에
 대해서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盧仁煥委員 發言하십시오.

○盧仁煥委員 방금 請願小委員長 報告를 받
 았습니다. 그런데 請願小委員會에서 改正하기
 로 合意했다 안했다 하는 것을 할 수 있
 을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우네요. 왜냐하면
 法을 改正하는 얘기는 우리 委員會의 法案
 審査小委員會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本委員이 알기로는 審査小
 委員會에서는 이것을 계속 檢討해서 小委員
 會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小委員長 金東仁 방금 報告를 드렸습니다
 마는 請願審査小委員會에서 合意하는 것은
 이 問題는 法改正小委員會가 있기 때문에
 현재 本 委員會에서 法改正小委員會로 하여
 금 成案을 만들어서 넘기자 하는 意見은
 合意 보았습니다.

○李海瓊委員 제가 補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請願審査小委員會에서 合意가 議決은 아니
 지요. 請願審査小委員會의 이름으로 合意한

事項을 當委員會에 意見을 제시해서 當委員會에서 法律改正小委員會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서 그 案을 받아가지고 當委員會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승낙한 것이고 말한 아까 報告말씀중에서 하나 잘못된 것은 날짜는 5월1일로 하고 명칭은 勤勞者의 날이 아니고 세 기억으로 勞動者의 날로 하기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小委員長 金東仁 맞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南載熙委員 發言하십시오.

○南載熙委員 잘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委員長님이 答辯하셔도 좋고 請願審査小委員長이 答辯해도 좋는데 가령 小委의 審査報告를 나중에 議決하는데 그러면 請願審査 小委員會의 것을 우리가 議決하면은 이것은 다른 請願과 달라서 法律改正作業이니까 法律改正小委員會로 넘어간다 말이지요. 그러면 法律改正小委員會가 審査小委員會 合意事項을 귀속적인 것이냐 自由裁量을 갖는 것이냐 그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까.

○專門委員 卓英鎮 기속력은 없지요.

法案審査小委員會에서 請願審査小委員會의 合意事項을 존중하는 선에서 審議를 하는 것입니다.

○南載熙委員 그러면 專門委員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더 發言하실 委員 안제시지요?

그러면 小委員에서 報告한대로 請願의 要旨를 수용하되 이는 立法事項이므로 小委員會의 報告를 존중하여 向後 勞動者의 날 制定에 관한 法律改正案을 勞動委員會에서 立案 提案키로 하고 이 請願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4分 散會)

○出席委員

金 令 培	金 東 仁	南 載 熙
盧 仁 煥	安 瓚 熙	李 台 燮
鄭 宗 澤	李 相 洙	李 海 瓊
韓 光 玉	盧 武 鉉	李 仁 濟
金 炳 龍		

○委員아닌出席議員

盧 武 鉉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卓 英 鎮
立 法 審 議 官	宋 芳 燮

○出席國務委員

勞 動 部 長 官	張 永 喆
-----------	-------

○出席政府委員

勞 動 部	
次 官	李 龍 俊
企 劃 管 理 室 長	鄭 東 佑
勞 政 局 長	具 然 春